東大新聞

發行人 鄭在覺
編輯人 崔世榮
印刷人 方又榮
主幹 洪起三
編輯局長 金容斗
編輯部長 林翼斗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 8131~9
本社直通 ☎ 8577

每週火曜日發行

大學의 民主發展 다짐

——호국단 인수 인계식 가져

護國團 영예로운 退陣 과도기임무 誠實遂行할터

한도학단 엽무 인수인계식이 지난 27일 본관 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이날식은 鄭在覺총장, 崔世和 학생처장과 李潤根 前 사단장(경영·4)·정기선(정외·4) 운영위원장등 20명이 참가하여 박자현 학생처장과 사단장 등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날 식은 鄭在覺총장, 崔世和 학생처장과 李潤根 前 사단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 인수인계 경과보고, 前사단장, 鄭운영위원장 악수, 사단장 인사말등의 인사말에서 李前사단장은 인사말에서 『구체적하로 진행되었는데 에서의 학생대의 기구로선 많은 부속합을 느껴야만했다는 고 전제한 뒤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잘해결, 솔직國人의 발전으로승화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鄭원장도 인사말에서 『우리자신의 民主化를 이룩하는데 바로 學國發展이었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한 제도가 필요한데 그런 제도를 통려주고 영예롭게 퇴진하는호국단 간부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학원민주화에 추호의 지체됨도 없이 과도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鄭총장은 격려에서 『前호국단 간부들도 나름대로 불편함수 많엤 었였던 지라에서 그들대로최선을 다해주어 감사한다』고 말한뒤 『마찬없이 자제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수행하고 거부했는데 「하기과목」의 수강을 거부했는데 「학기과목」의 수강을 거부함, 과목, 형식으로 서명서를 작부 韓相範로 서명대학장에게 이를 제출했다.

이러한 수강거부 움직임은 본교의 학생들은 지난달 31일(月) 모교수의 강의에대해 수강을 거부했다.

이날 정외과 학생들을 포함한 경제, 인수 심을 발휘 호국단을 포함해온 운영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진정하고도자 탐방교수, 남일」의 형식으로 유보운 학원민주화라 이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政外科 수업거부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 3이 이미몇개과에서일고있는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이날 정외과 학생들은 「모교수」가 교수직을 포기할때까지 계속 수강을거부할 예정이다.

「여학생회」 발족 위한 女學生임시總會 가져

지난 3월27일 오후3시 30분 학생회관 3층에서는 총학생회부활에 즈음하여 여학생회의 필요성을 인식, 자율적 조직의 여학생회부활을 위한 여학생임시총회가 안경자(다·술·3)의 사회로 尹乙順여학생전담 정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尹여학생전담은 여학생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남녀 평학의 사나은 동등권을 위해 일보다 여학생의 협의를 통해 『부족한 점은 보충해 불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교 총학부에서 발행된 국민윤리과 과서는 학생회의 필요성을 토론하고 이날 모인 학생들의 추천으로 구성되어 여학생회가 조직되는 즉시 자진 해체한다는 조건하에 18명의 발기위원회가 발족했으며, 이들에 의해 여학생회 최초 착성및 여학생회임원선거관리등의 제부책 사항이 논의되어 심식될 예정이다.

국문과 신입생환영 백일장도 서오능서

국어문학회 (회장=길무봉)에서는 신입생 환영을 겸한 白日場을 경기도 소재 서오능에서 지난 29일 실시하였다.

국문과 교수들 비롯 국문과 전후배 70여명이 참가한 이날 백일장의 詩題는 「石燈」「새벽」이었고, 散文題는 「역사」「계단」「전환기」였다.

이날 오후2시 시상식을 金起東학과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洪起三 교수의 시상평과 장)의 산문심사평이 있은후 신학기에 새로 부임한 金英培교수와의 상견례가 있었다.

이날 시부, 산문부 각부분 장원 입상작을 영었고 착상, 착하의 해방학과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시부=착상=「石燈」최종만◇산문부=▲착상=「새벽」박식◇학술부=▲착상=「계단」이석규.

ROTC체육대회 1년차종합우승해

학군단주최 R·O·T·C체육대회가 지난 29일(土) 본교 대운동장에서 열려 1년차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이준상, 학군단장을 비롯한 鄭在覺총장과 간담회가 崔世和학생처장, 운영위원 대표, 학생처, 본부 민주화의 대의나 교수 학생간의 불신등조를씻거친 뒤 결정하자는 『최고책임자로서 그들에게 만 책임이 돌려지는 것은 고려해볼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교 총학부에서 발행된 국민윤리과서는 학생처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추가했다고 서를 연합회가 업무를 수행할수없는 상태라고 대의원회가 임정할 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중재및 감정책 업무를 담당한」라는 조항을 서클연합회의 권리및 의무, 구성이 명기되었으며 2장「학생총회」에는 대의원의 구성, 권한, 소집, 학생총회의 장에대한 소집, 학생총회의 장은 「대의원회」·부회장은 「총학생회장및 부회장」으로지위와 임기및 선거에 관한 조항이 수록되었고 업무및 권한에 관한 11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5장은 「운영위원회및단과대학별학생회」 제6장「집행부」 제7장「써클연합회」 제8장「대학생회」 제9장 재정」 제10장「선거관리」 제11장「회칙개정」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날 모임에선 앞민의 견의 피력으로 심의가 진행되어 제3장「대의원회」에 관한 조항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이날 심의된 사항을 도대로 운영위원회속에서는 會則을 완성하게 된다. (3면참고)

한편 대의원회에서는 총학생회 부회장 김동수 (법·4)에서는 지난달 31일 회관에서 서라벌문화 80학년도에 새로이 탄생한 7명 40명을 위한 新入生환영회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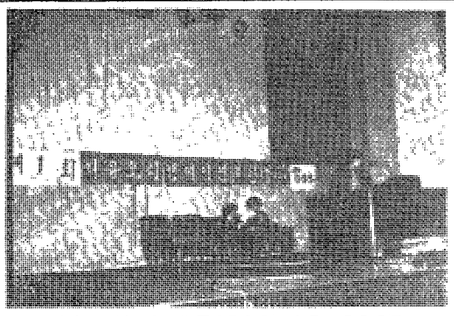
이날 오후2시부터 시작된 환영회의 진행순서들보 1등 회계과 김철희 2등 국사과 김동찬 3등 경영과 전재열문동이며 특등상으로 영문과 손명진의 4명을 포함 네팀이 받았다.

한편 각과별 수상내용을 보면 1등 학의예과 2등 일어일문학과 3등 행정학과이며 오후6시에 모든순서를 끝마치었다.

써클의 自律的 기능회복

——써클 연합회를 돌아본다

홍사단등 신규 가입돼



◇지난 31일 (月) 써클오리엔테이션및 환영회가 중강당에서 있었다.

大學의 學生活動이 주로 「써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 써클활동의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및 이에 따른 諸제를 의 자율적 절립과 자율적 활동 보장은 大學人에게있어서 매우 중요한일이 아닐수 없다.

總學生會 부활이라는 어제면 學內昏迷(?) 속에서도 新入生들 맞이한 이들 써클 들은 이에 아랑곳하지않고 각기 자기 써클 소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27일 각써클창을 모임을 갖고 「써클연합회」를 발족시킬 것에 의견을 모으고 지난달 4일에는 총 23개 써클장들이 참석하여 이를 정식 발족시켰다.

실제로는 작년말부터 이 제안을 안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 작성된 총학생회 취지안을 보면다도 「서클연합회가 업무를 수행할수없는 상태라고 대의원회가 임정할 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중재및 감정책 업무를 담당한」라는 조항을 서클연합회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추가했다고 서클 연합회는 이번 취지안을 보면다도 「서클연합회가 업무를 수행할수없는 상태라고 대의원회가 임정할 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중재및 감정책 업무를 담당한」라는 조항을 서클

卒業論文制의 問題點

사설

요즘 本校에서는 80學年度 卒業豫定者 즉 4學年 학년에 대한 卒業論文指導計劃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지난 3月末頃까지 該當學生들은 論文題目을 설정해서 제출하게 되어있고 오는 5월10일부터 7월16일 사이에 論文草稿를 내도록 되어 있다. 또한 上記草稿에 의한 論文指導는 夏季放學中에 실시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그런같은데 작년 10월에 즉 3학년2학기때 벌써 卒業論文의 제목을 학생들이 敎學當局에 제출하였을것이며 따라서 이번 卒業論文進行은 중전보다 무려 5개월이나 늦다고 말할수 없다. 물론 올것없이 돌연한 政變으로 그와같이 부득이 遲延되었음을 이해못하는바는 아니나 卒業論文制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었더라면 학교측은 좀더 미리부터 선동이야하지 않았는가하는바 아니다. 그러나 학년2학기 즉 4學年2學期에 논문제목을 제출해 놓았던 학년에 대한 卒業論文指導를 재우고 또 論文指導라는것도 4학년 여름放學이 다가설 무렵부터 서둘러 劃이었다면 오즈음진행시키고 있는 卒業論文指導計劃을 늦춘것이 라고도 할수는 없을것이다. 이처럼 卒業論文을 形式的으로 운용함바에는 차라리 廢止하는것이 어떨까한다.

卒業論文이라고하면 大學에서 履修한 學問을 보태로 開心이 있는 分野의 어떤問題에 대해 자기나름대로의 理論을 展開하는데 뜻이 있는줄로 압다.

그리하여 卒業論文制는 최근몇해 전부터 적응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라 그이전에도 일부 大學에서채 택하였던 것으로 記憶하고 있다. 다만 最近의 卒業論文制가 各大學의 즉업에정자에게 一律的으로 强要하다시피 適用된 점만이 다를뿐이라 하겠다.

이것은 곧 財政當局의 필요성과 豫算의 효율적인 집행이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서 특히 論議하고자 하는 것은 稅收增大와 관련된 租稅의 配分原則에 관한 것이다. 지난70년대의 稅政은 한마디로 開發財政需要를 충족하기 위한 稅收增大만을 租稅政策의 목표로 삼아왔기 때문에 資源의 합리적인 配分은 論外로 하더라도 租稅負擔에 있어서 根據해야할 기준이 명확하지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租稅負擔과 관련된 社會正義가 상당한 정도로 침해되고 때로는 조직적인 租稅抵抗을 유발하는 素地를 만들었던 것이다.

租稅配分의 基本原則은 무엇보다도 課稅의 公平이다. 이 理念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通用되는 敎科書的 기초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를 새삼스레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稅政이 그러한 理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國民으로 하여금 公平하게 租稅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은 社會正義의 要請일뿐만 아니라 같은 금액의 租稅를 國民의 가장 적은 부담으로 징수할 수 있게하고 또한 稅政을 合理的으로 운영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租稅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한것이냐고 할 때는, 부담금액을 기준으로 또는 납세자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이와같은 세율의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租稅의 여러 機能은 반드시 서로가 합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기능에 우위를 두어 一國의 稅政을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그나라가 處하고있는 政治的 經濟的인 여건에 크게 좌우되기 마련이다. 現代의 租稅國家에서 稅制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財政收入을 확보할수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는 별다른 異議가 없지만, 부엇을 위한 稅收增大냐고 할때는 먼저 公共의 福利에 필요하고 다음에는 자원의 효율적인 配分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너무도 自明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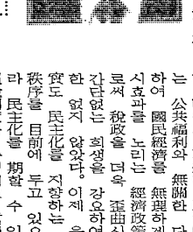
한편 금년도 본교 즉업반이 졸업논문을 제출하는것은 기정사실이므로 이에 대해 몇마디 해두지않을수 없을것 같다. 우선 論文指導는 교수의 전공별로 學生을 배정해주기를 바란다. 卒業論文을 지도할때마다 본인들 통해 지적했는데 다름 아닌 過去의 卒業論文을 통해 지양는 독창은 論文을 종종 찾아볼수 있었다는 點이다. 우연히 그렇게 될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빈것이다. 大學의 卒業論文이 分明한것이다. 大學의 卒業論文에 잔혹 훌륭한 創見이 담겨져있는경우도 있으나 大體的으로 보아 專門學術誌에 발표할만한 좋은 論文이 많이 나오리라고는 期待하고있지않다. 따라서 水準이야 얕든 높든간에 즉업반학생들은 각기에 배정한다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論文指導가 성실하게 이루어져 내용이 충실한 卒業論文들이 提示되기바란다.

다음 일은 사실상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放學中 교수를 찾아다니면서 論文指導를 받겠다는 學生도 있는것이 아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卒業論文의 지도는 여름방학전에 즉 1학기의 開學中에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밖에 過去의 卒業論文을 통해 지양는 독창은 論文을 종종 찾아볼수 있었다는 點이다. 우연히 그렇게 될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빈것이다. 大學의 卒業論文이 分明한것이다. 大學의 卒業論文에 잔혹 훌륭한 創見이 담겨져있는경우도 있으나 大體的으로 보아 專門學術誌에 발표할만한 좋은 論文이 많이 나오리라고는 期待하고 있지않다. 따라서 水準이야 얕든 높든간에 즉업반학생들은 각기에 배정한다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論文指導가 성실하게 이루어져 내용이 충실한 卒業論文들이 提示되기바란다.

租稅制度의 모순점改善시급

納稅者의 협력도 중요해



金英暗 〈경상대교수·會計學〉

租稅는 公共目的을 달성하기위한 財源의 조달에 그일차적인 목적이있으나 公正한 社會秩序를 유지할 목적에서 所得의 再分配機能을 갖기도하며, 때로는 經濟의 安定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와같은 租稅의 여러 機能은 반드시 서로가 합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기능에 우위를 두어 一國의 稅政을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그나라가 處하고있는 政治的 經濟的인 여건에 크게 좌우되기 마련이다. 現代의 租稅國家에서 稅制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財政收入을 확보할수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는 별다른 異議가 없지만, 부엇을 위한 稅收增大냐고 할때는 먼저 公共의 福利에 필요하고 다음에는 자원의 효율적인 配分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너무도 自明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財政當局의 필요성과 豫算의 효율적인 집행이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서 특히 論議하고자 하는 것은 稅收增大와 관련된 租稅의 配分原則에 관한 것이다. 지난70년대의 稅政은 한마디로 開發財政需要를 충족하기 위한 稅收增大만을 租稅政策의 목표로 삼아왔기 때문에 資源의 합리적인 配分은 論外로 하더라도 租稅負擔에 있어서 根據해야할 기준이 명확하지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租稅負擔과 관련된 社會正義가 상당한 정도로 침해되고 때로는 조직적인 租稅抵抗을 유발하는 素地를 만들었던 것이다.

租稅配分의 基本原則은 무엇보다도 課稅의 公平이다. 이 理念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通用되는 敎科書的 기초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를 새삼스레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稅政이 그러한 理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國民으로 하여금 公平하게 租稅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은 社會正義의 要請일뿐만 아니라 같은 금액의 租稅를 國民의 가장 적은 부담으로 징수할 수 있게하고 또한 稅政을 合理的으로 운영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租稅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한것이냐고 할 때는, 부담금액을 기준으로 또는 납세자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이와같은 세율의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租稅의 여러 機能은 반드시 서로가 합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기능에 우위를 두어 一國의 稅政을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그나라가 處하고있는 政治的 經濟的인 여건에 크게 좌우되기 마련이다. 現代의 租稅國家에서 稅制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財政收入을 확보할수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는 별다른 異議가 없지만, 부엇을 위한 稅收增大냐고 할때는 먼저 公共의 福利에 필요하고 다음에는 자원의 효율적인 配分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너무도 自明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먼저, 公平課稅의 기반은 稅法의 모순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조성되어야 한다. 80년부터 시행되는 稅制에 의하면 法人稅를 위시하여 각종 稅法에 다소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이정도만으로는 충분한 것이라 할수 없다. 다만 稅務公務員이 法令의 해석이나 事實認定을 할 때에 裁量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租稅行政에 있어서 재량은 반드시 지금까지의 稅政은 法치체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法令보다 裁量權을 행사하거나 法令해석에 있어서도 어느 程度의 융통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法에 이와같은 한계가 不明하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現行 法令에서 보건데, 당연히 法律의 형식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야할 사항이 행정관의 명령에 광범위하게 委任됨으로써 행정관의 便宜에따라 法目이 변경되는 현상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에의 하나로 미국의 內國歲入法을 집행하는 益稅廳 目과 損金廳目이 모두 法에 규정되어 일관성있는 엄격한 해석을 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法에 이와같은 한계가 不明하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現行 法令에서 보건데, 당연히 法律의 형식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야할 사항이 행정관의 명령에 광범위하게 委任됨으로써 행정관의 便宜에따라 法目이 변경되는 현상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에의 하나로 미국의 內國歲入法을 집행하는 益稅廳 目과 損金廳目이 모두 法에 규정되어 일관성있는 엄격한 해석을

○ 학원 民主化·自律化 분위기 조○ 로 總學生會 復活이 추진되고 있다. 시대의 과제이자 대학인의○ 진정한 민주 양식을 표출할수 있는 總學生會 復活에 앞서 75년○ 부터 5代까지 활동해온 혹독한 나날○ 맞해 본다. 아울러 囚殿을 벗고 참다운 의미의 象徵塔을 형성하○ 기 위한 노력이 충실한 이때 학원발전의 活性化를 위해 全家○ 國人의 성의있는 참여를 촉구한다. ○ △편집자注△ ○

學生活動의 지침과 向方

總學生會、總選이로 조속 復活돼야

5代의 護國團、구조적 모순 노출돼

學生지도과 폐지는 學生活動 촉진시켜

護國團 해체와 학생회 復活에 즈음하여

I、護國團 創團

「一面勉學」、「一面護國」이라는 국가안보적 학원에서 1975년 6·25 25주년을 맞이하여 學徒護國團이 創團된 이래 8천 東國人의 代議機關으로서, 護國團이 남긴 遺産이 무엇이였던가 하는 것은 學園自律化라는 榮光을 빌리지 않고서도 公正한, 歷史的側面에 의거한 評價方式에 의해서 批判될수 있으며 再照明될 수 있다.

대통령승인 호국단 설치령과 文敎部令인 설치시행 규칙운영규정에 의해 護國團 體制가 學園에 導入됨으로 말미암아 以前의 學生自治活動機構이며 代議 機關이었던 總學生會는 자연 解體되었다.

學園陸海空體로 어수선했던 학원분위기를 쇄신, 學園街를 정비하여, 音擾的이며 統一的인 眞理探究를 목적으로 하고 모든 政治的·社會的 勢力으로부터 독립하여 自由를 가진 象牙塔의 본질을 再構成한다는 의미에서 護國團創團의 이론적 근거가 성립되다.

6·25동란당시, 敎國의 先鋒으로 현신했던 「學徒兵」의 정신과 三國統一의 偉業을 성취시킨 「花郎精神」을 脈으로 一新된 모습의 大學人像을 모색하려 護國團은 첫발을 내디뎠던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볼때 護國團이라는 체제의 浮上은 학생활동의 체질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수긍이 되 것이었지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많은 시련과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II、護國團의 발자취

무엇보다도 選擧制가 아닌 幹部人選이라는 점이 간부와 學生들과의 遊離感을 조성하였고 결국에는 학생들의 無關心과 수동적인 참여를 낳게 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싹튼 護國團간부에 대한 不信은 執行부나 기타 제반행사 진행에 커다란 저해요소로 대두하게 되었다. 그러나 반면 直選制가 빚어낸 선거과열과 부정, 물질적인 제반 문제점과 같은 행정상의 부조리는 말할수가 있었다. 得과 失을 병존하는 것이겠지만 학생활동 活性化의 礎石이되는 학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總學生會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學生들의 자율적인 의사반영기구이었기에 護國團이 안고 있던 단점들을 보완하는 학생참여의식의 誘導, 幹部의 지도협력과 奉仕精神 함양에 대한 自省 등을 모색하며 기반을 굳혀갔다.

한편 호국단 예산은 1년단위로 1학기초에 책정되는데 호국단의 年度別 引受·引繼는 2학기초에 이루어져 예산상정과 책임기간이 일치되지않는 不合理를 안고 있었다. 다음 代로 넘어가는 예산은 이런 이유로 심각한 음을 피하기엔 고충이 따랐다.

3代(77년2학기~78년1학기)에서는 유명무실한 연합장조직을 폐지, 자체개선을 시도하였고, 4代(78년2학기~79년1학기)에 이르러서는 「행사를 위한 행사」라는 의문도 남겼지만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 성공적으로 많은 일을 했다.

III、總學生會로의 轉換

自律化 바람과 함께 전국의 大學街 학풍조성과 總學生會 부활을 위해 격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대학가는 薔薇 격동과 진통 속에서 學園民主化의 礎石이 되며 젊음이 될 學生會부활이라는 당면과제를 수행코자 전국의 대학은 주춤히 발돋움하고 있다.

분과에서는 總學生會 부활 움직임이 작년 12월 5일 각 써클, 학과 등 일찍부터 일어났다. 7개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학생회부활 추진 과정의 民主的이고 合理的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인들은 진정한 지성이 무엇이며 에비사회인으로서 습득해야할 참여의식과 社會性을 간접체험하기 총 분했다는 이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國體典은 5월 축제행사도 주관해보지못하고 지난 3월20일 解體式을하였으니 학생들이 기대했던 5代 호국단의 自體改革 努力과 형식을 탈피, 內實化를 기하려했던 초기의 의도는 無爲로 돌아가게되었다.

이리하여 護國團體制는 6년간의 나름대로 나름대로 기능을 원만히 하려 노력했고 사명을 다하려 고전분투한것은 부인해서는 안될점이다. 남아 있다.

自律化 바람과 함께 전국의 大學街 학풍조성과 總學生會 부활을 위해 격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대학가는 薔薇 격동과 진통 속에서 學園民主化의礎石이 되며 젊음이 될 學生會부활이라는 당면과제를 수행코자 전국의 대학은 주춤히 발돋움하고 있다.

분과에서는 總學生會 부활 움직임이 작년 12월 5일 각 써클, 학과 등 일찍부터 일어났다. 7개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학생회부활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학생회부활 발기위원회」를 결성되어 학생總意 의식대행기구의 기능을 가지며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3월11일 첫 학년대표자회의에서 「護國團幹部 즉각 사퇴안」이 결정됨으로 해서 총학생회 부활의 당위성을 엿보게 하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문교부에서 발표된 護國團改正令은 學生會부활에 대해 제동을 건 셈이었다. 기존護國團의 자체개선을 골자로 하는 同改正令은 自律化의 불에 휘기를 띄찾은 학생들의 민족을 사게 되었다.

한편 2차 학년대표자회의에서는 각 단과대별 3명씩 총 24명으로 구성된 選擧委가 발족됨으로 해서 당분간 호국단 간부의 사임으로 인한 학내 行政上의 공백을 메꾸게 되었다.

總學生會 구성까지 학생 여망의 반영기구로 선거로 代行역할을 갖게 된 選擧委에서는 선거로 운영위원장을 선출, 3名의 후보자 가운데서 정기선(정의·4) 군이 운영위원장으로 확정되었다.

지난 28일 교수석미나실에서 거행된 제5次 학년代表者會議에서는 前文과부칙, 全11장의 總學生會則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總學生會則에는 포함代議員會, 서클연합회, 재정과 선거관리에 관한사항으로 드러난 결점이었다. 앞으로의 推移로 보건대 4월중에는 總選이 실시되어 總學生會가 復活될 전망이다.

IV 總學生會 復活에 따른 問題點과 지언

앞으로 實現될 總學生會의 復活은 75년에서 갖고 개학과 함께 학생회 회칙시안을 인쇄, 배부했다.

추진위원회는 학원분위기는 일치과 차후 총학생회를 해결해야 하는 일치과 차후 총학생회를 주도하였으며 비용의 出血을 감내하면서까지 어느 정도 總學生會 復活의 기반을 닦아놓았다.

서울대, 梨大에 이어 3번째로 公聽會를 갖고 본교의 自律化 분위기 조성을 개학과 개학과 바람직한 발맞추어 區分되어 있어 學生들의 信賴感과 好感을 얻기에는 不利했던 것이다.

그동안 學徒護國團을 이끌어 온 幹部들의 人選은 各種任敎授의 推薦→各單科大 敎學課長→學長→學生處長→學生指導課의 각종 데스크의 判斷(2회의 練修敎育과 中央學徒護國團의 연수교육)→常任指導委員會(學處長級)→總長任命의 절차를 경쳐 실시되었는데 人選過程에 느 부분이던지 學生들의 意見이 反映될 素地는 없었다.

주임교수 추천 부분에서 주임교수의 재량으로 추천대상에 대한 諮問을 학생들에게 일률수였다는 융통은 있었지만 상급식의 人選이 아닌 하급식의 人選은 문제시 되지 않았다. 또한 총학생회를 통해 대학인들은 진정한 지성이 무엇이며 에비사회인으로서 습득해야할 참여의식과 社會性을 간접체험하기 총분했다는 이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國體典은 5월 축제행사도 주관해보지못하고 지난 3월20일 解體式을하였으니 학생들이 기대했던 5代 호국단의 自體改革努力과 형식을 탈피, 內實化를 기하려했던 초기의 의도는 無爲로 돌아가게되었다.

이리하여 護國團體制는 6년간의 나름대로 나름대로 기능을 원만히 하려 노력했고 사명을 다하려 고전분투한것은 부인해서는 안될점이다. 남아 있다.

自律化 바람과 함께 전국의 大學街 학풍조성과 總學生會 부활을 위해 격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대학가는 薔薇 격동과 진통 속에서 學園民主化의礎石이 되며 젊음이 될 學生會부활이라는 당면과제를 수행코자 전국의 대학은 주춤히 발돋움하고 있다.

분과에서는 總學生會 부활 움직임이 작년 12월 5일 각 써클, 학과 등 일찍부터 일어났다. 7개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학생회부활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학생회부활 발기위원회」를 결성되어 학생總意 의식대행기구의 기능을 가지며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3월11일 첫 학년대표자회의에서 「護國團幹部 즉각 사퇴안」이 결정됨으로 해서 총학생회 부활의 당위성을 엿보게 하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문교부에서 발표된 護國團改正令은 學生會부활에 대해 제동을 건 셈이었다. 기존護國團의 자체개선을 골자로 하는 同改正令은 自律化의 불에 휘기를 띄찾은 학생들의 민족을 사게 되었다.

한편 2차 학년대표자회의에서는 각 단과대별 3명씩 총 24명으로 구성된 選擧委가 발족됨으로 해서 당분간 호국단 간부의 사임으로 인한 학내 行政上의 공백을 메꾸게 되었다.

總學生會 구성까지 학생 여망의 반영기구로 선거로 代行역할을 갖게 된 選擧委에서는 선거로 운영위원장을 선출, 3名의 후보자 가운데서 정기선(정의·4) 군이 운영위원장으로 확정되었다.

지난 28일 교수석미나실에서 거행된 제5次 학년代表者會議에서는 前文과부칙, 全11장의 總學生會則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總學生會則에는 포함代議員會, 서클연합회, 재정과 선거관리에 관한사항으로 드러난 결점이었다. 앞으로의 推移로 보건대 4월중에는 總選이 실시되어 總學生會가 復活될 전망이다.

Ⅳ 總學生會 復活에 따른 問題點과 지언

앞으로 實現될 總學生會의 復活은 75

총학생회 솔직한 試案

제1장 총 강

제1조(명칭) 본회는 본교 대학교 총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활동을 통하여 숭고한 불굴정신과 진리탐구와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하며 합리적이고 비관적인 지성을 육성하여 가치있는 대인 지성을 창조하고 민주사의 발전과 정에 적극참여하는 민주학도로서의 전인적 인격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제4조(회원) 생략)

제5조(구성)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대의원회, 총학생회장및 동 부회장, 운영위원회, 단과대학별 학생회, 집행부, 써클연합회, 여학생회를 둔다.

제2장 학생총회

제6조(구성) 본회의학생총회는 본교재학생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자위및 권한) 학생총회는 본회의 비상결의 기관으로서 아래사항을 결의한다.

㉮대의회가 회부한 중요사항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중요사항

㉰2학기에 본회나 전회원의 이해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제8조(소집및전파 결의요건)

㉮학생총회는 대의원회의 의결인 이상의 서명날인에 의한 요구에 소집한다.

㉯대의원회에 의한 학생총회소집의결에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찬성이 있어야한다.

㉰학생 총회의 결의는 전회원 4분의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제9조(학생총회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단 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결가 소집안건일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제10조(지위)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제11조(구성및 권한) 본회는 각과 각학년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단, 1학기에는 1학년이, 2학기에는 4학년이 제외되며 운영위원은 대의원을 겸할수 없다.

제12조(대의원의 임기와 선출) ㉮대의원의 임기는 6월이며 자율적으로 연임할수 있다.

㉯대의원은 각과·학년별로 9월부터 익년9월말까지이다.

㉰대의원선출은 별도의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

제13조(일반권한) 대의원회는 아래와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학생총회의 소집의결

㉯대의원회 및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및 기타 규정 개정

㉰대의원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관계법을 원칙으로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대의원의 회의 의결이나 의장직권으로 비공개로 할수있다.

㉲총학생회장과 동부회장, 단대학생회장, 여학생회장에 대한 탄핵결의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학칙의 개정발의는 재적과 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학생총회의 소집의결

㉯대의원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

㉱학교당국자의 출석요구의 출석요구와 규정 개정 및 규약의 제정 및 기타 규정 개정 사항에 관한 사전동의와 의결

㉲회원은 관계법을 원칙으로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대의원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수있다.

㉳총학생회장과 동부회장, 단대학생회장, 여학생회장에 대한 탄핵결의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학칙의 개정발의는 재적과 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제15조(구성) 본회는 동국대학교 총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활동을 통하여 숭고한 불굴정신과 진리탐구와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하며 합리적이고 비관적인 지성을 육성하여 가치있는 대인 지성을 창조하고 민주사의 발전과 정에 적극참여하는 민주학도로서의 전인적 인격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제4조(회원) 생략)

제5조(구성)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대의원회, 총학생회장및 동 부회장, 운영위원회, 단과대학별 학생회, 집행부의 장이 된다.

제2조(임기 및 선거) ㉮임기는 9월부터 익년 8월까지로 한다.

㉯총학생회장은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며 선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자격요건) 총학생 회장과 동(同) 부회장으로 선출될수 있는 자는 다음 각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에서 4학기를 수료한자로 5학기를 등록한자.

㉯유기 정학 이상의 처벌이나 학사 경고를 받지 않음자.

(단 학사경고로 인한 처벌은 제외된다.)

제24조(검토및 권한)

㉮회칙개정의 건의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칙개정안은 정의된때에는 대의원회의장은 즉시 이를 총학생회장에게 공포해야 한다.

㉰이송하고 총학생회장은 지체없이

부칙

제1조 본회칙에 규정되지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규약에 있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회 총학생회은 대의원의 의결과 총장승인을 거쳐 공포하며 구학도 호국단 회칙은 폐지된다.

제3조 선거는 4월23일에 실시하며 정·부회장의 임기는 80년5월부터 익년 8월까지로한다.

(보) 제4조 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회칙을 갖는다.

2월안 회칙시안을 마련한다음 (개학) 문紙面사정임

學生會 復活에 따른 問題點과 지언

護國團 해체와 학생회 復活에 즈음하여

(1면 계속)

부칙

제1조 본회칙에 규정되지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규약에 있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회 총학생회은 대의원의 의결과 총장승인을 거쳐 공포하며 구학도 호국단 회칙은 폐지된다.

제3조 선거는 4월23일에 실시하며 정·부회장의 임기는 80년5월부터 익년 8월까지로한다.

(보) 제4조 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회칙을 갖는다.

慶州大 학생자치회도 뒤숭숭

○…본교의 학원민주화 운동을 이끄는 慶州大에도 번지고 있는데 학생자치회가 구성되어 1차 찬성표를 얻어 의장이 선출되었는데 그 정식발족을 서두르고 있다고 그런데 학교당국과 학생측의 엇갈린 견해로 공청회의결과는 학생숭숭하기만 하다. 학교당국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체제가 제대로 서지않았다며 이날 학생연사들의 강정노출로 학생들의 懷疑도 적지않았다고.

마지막 연사로 강사로 지하유게상이어서 모처럼 등에 찬물을 끼얹은셈이었던 이날 모임에 참석한 영문과 K군은 이무리 목청을 구어도 학교측의 처사를 보기는 시간낭비라고 불평을 털어놓기도 하였는데 보다 참신한 모임이 차후 다시 마련되어 하며 학교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석이 있어야 한다는게 학생들의 衆論.

學生活動은 男·女 구별 없어

○…學園의 自律化 바람이 불어 각대학에서 열린 반응을 보이자 지난27일에는 여학생 임시총회가 열려 기대를 모으기도. 첫 총회인 만큼 많은 참여가 있으리란 예상외로 8백여 東女들은 간곳 없이 사라지고 겨우 60여명만 모여 우왕좌왕, 보는이의 마음을 섭섭케 만들었으나 대학인답게 지성으로 논지를 확정.

慶州大 공청회 시비…… 産母의 진통 겪어야

18명의 발기위원을 구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女學生會의 편성과 성격을 구축하기로 해 밝은 전망을 보이기도. 여성의 위치를 주장하는 女大生들이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못하고 있으니 한심. 학생들은 男·女가 구별없다는 점을 각성, 좀더 참여의식을 갖고 명랑한 모습으로 활발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

담배꽁초 줍는일도 佛心?

○…한결같이 끄지 않은 담배꽁초들에 애꿎은 잔디가 「미운잔디」신세는 바람에 오늘 校內 곳곳에는 담배꽁초를 철저히 줍기 위한 캠페인이 일기도.

그 예로 지난번 ROTC생들이 일렬로 도열해서 담배꽁초를 줍는 장면이 목격됐는데 이를 본 諸學兄들도 성실껏 도와주는 흐못한 광경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한때 自然人으로 돌아간것 같아. 佛心을 엿보게 해. 아울러 이러한 일들은 계속 벌여져야 하지 않을까.

비상탈의 써클 오리엔테이션

○…지난 31日(月) 本校 學冷館에서는 新入會員을 맞아 제1회 써클오리엔테이션및 환영회가 盛大(?)히 열려 명랑한 식있는 東國人에 話題. 넓은 공간에 여백이 많아 美的분위기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의식없는 東國人을 멸빈이라도 외쳐대었을 듯.

이런 연유로 당초 예정이었던 한강엠(法政大學系) 교수의 강연이 취소가 되기도. 한편 써클연합회의 사무직인 박숙자 교수는 학원민주화를 맞이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방안과 써클연합회 결성의 필요성에 관한 조언을 하였다.

학교측 "학생회 부활 지지"

○…본교 학교측은 학생회 부활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학교측은 학생회 부활을 지지하는 이유로 학생회가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학교측과 학생간의 의견교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학교측은 학생회 부활을 위한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해 학교측은 학생회 부활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학교측은 학생회 부활을 지지하는 이유로 학생회가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학교측과 학생간의 의견교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학교측은 학생회 부활을 위한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해 학교측은 학생회 부활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4장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제21조(자유)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및 집행부의 장이 된다.

제22조(임기 및 선거) ㉮임기는 9월부터 익년 8월까지로 한다.

㉯총학생회장은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며 선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자격요건) 총학생 회장과 동(同) 부회장으로 선출될수 있는 자는 다음 각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에서 4학기를 등록한자.

㉯유기 정학 이상의 처벌이나 학사 경고를 받지 않음자.

(단 학사경고로 인한 처벌은 제외된다.)

제24조(검토및 권한)

㉮학교당국자의 출석요구의 출석요구와 규정 개정 및 규약의 제정 및 기타 규정 개정 사항에 관한 사전동의와 의결

㉯회원은 관계법을 원칙으로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대의원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수있다.

㉰총학생회장과 동부회장, 단대학생회장, 여학생회장에 대한 탄핵결의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학칙의 개정발의는 재적과 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제25조(구성) 본회는 동국대학교 총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활동을 통하여 숭고한 불굴정신과 진리탐구와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하며 합리적이고 비관적인 지성을 육성하여 가치있는 대인 지성을 창조하고 민주사의 발전과 정에 적극참여하는 민주학도로서의 전인적 인격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제4조(회원) 생략)

제5조(구성)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대의원회, 총학생회장및 동 부회장, 운영위원회, 단과대학별 학생회, 집행부의 장이 된

外家宅情景

許 魏

견우 직녀의 손목에는
오작교 길이의 情
愿恨로운 색을 부리로
타래처럼 이어지는
情이 묻어나다.

外家宅 小室
연두줄 가야금
이윽날 별빛이 내려
散調를 듣고
遼原구 파란 잎술
달빛 젖이파리
羅浦의 빛물 흐르면
울어앉을 女人
머리를 풀다.

雙子으로
하늘 가는 새들
발목 곁여 情을 이으면
靑鶴의 치마에
뜨는 견우성.

<文理大 國文科>

前 호국단 사단장과 구체제의 贖罪羊

◇이윤근 (경행·4)

우리나라 모든 領域에서 舊體制의 産物 아닌이 어디 있으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阿諂하지 않음이 또한 있겠습니까? 前 사단장 李潤根 (경행·4) 군은 現學園의 가장 我的인 죄들을 지적하며 『유신체제하에서의 알몸』한 주인이였던 政治人의 퇴각에 따라 사실상 주인인는 학원에 이르렀음니다。이에 학생과 교수, 특히 학생은 대학의 主人性을 되찾아야 할 것이며 우리들에 다시없이 중요한 본들인 훌륭한 교수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외침은 중단 되어야 할 것인니다』라고 간단한인 계의 所感을 피력했다。

本校 사단장 재직시절 기간중인 아구부 活性化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문두 장과련에 커다란 힘을 기울였으며 미비했던 응원부의 復活및화려한 버구성등校威선양의 밑바탕에지대한 공헌을해왔다。

송달한 인수·인계에 이어 구성되어있는 代議員會에 물신양면 지원한 東國의 발전을 위해 協助·노력하고 있는 李 前 사단장을 『大學生의 기관인 자세일 수 있는 학단장은 학업에의 精進을 위해 영어회화특강및 日語特講등을 계속되어야 함겠』이라며 면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政治發展및 學園의 自律化·民主化의 불에 다른 學內 學生들의 참여및 환경개선을 위해 바로잡아야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회의하는것을 보고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구체적이 특히 師大앞의 아파트건의 불개성화가 우리 대학인들에게 남아 있다는 기숙사시설이나 부족한 기숙사시설의 확충, 고시반의 적극지원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끝으로 『사단장 재직동안 소홀했던 학과수업및 학생세미나를 마련, 會則을 보완하고 대의원회의 실의 있게 거쳐 총장승인우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總選에 관한 연설에서는 『우리가 다소있더라도 오는 23일에는 직접 투표에 임하는 학생들이 모두 건강하며 모든 팩킹은 완료했으며 교포들의 따뜻한 협조로 한국음식을 먹고 있읍니다。날씨만 좋으면 성공을 백%입니다。

1980·3·6 밤 이 인 정 드림

주인의식 투철한 학생되어야

『학원민주화는 우리 자신들이 주체의식을 회복, 권리와 책임을 깨닫는 민주양식을 체득할 때 완성되는것』이라고 鄭棋燮 (정외·4) 대의원회 의장은 역설한다。

◇정기섭 (정외·4)

鄭의장이 總學生會부활을 위해 석달간 자업을 해오면서 느낀 잘못점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내야 할 학우들의 의혹 불신에서 왔다며 선과 불신의 자기회생과 노력을 의의한하는 이시대의 불신풍조를 개탄하며 상호신뢰에 입각한 사랑이 대학사회에 충만해야 된다고 역설한다。

촉학생회 부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대의원회 운영위원들은 부활준비작업, 호국단 전수로 진행방식 대행, 대의원회 소집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總選을 준비하고 있다。

부패하지 않을 學生會구성시급

『보피의 경우 추진위의 발족은 이달 권이였으나 방학중에 구성되었던 관제로 지지기반이 약했고 (수) 아주1시에 불상운 정장은 학생총회를 마련, 학교당국과도 협의 의견을 경주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鄭의장은 현재일정에 관해 『오는 2일 2일 학생총회를 마련, 장을 통지에 선거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시안이 마련된 선거관계제과 관리위원회 과 과열분위기 억제를 위해 단대회장과 촉학생회장을 통지에 선거할 것이다』라고 했다。

總選제로 선거를 치룰 것이며 선거일정단축 선및 공영제로 선거를 치룬 것이다。그렇게도 참여의 열의가 없어야만 했던 것은 무엇일까。오히려 그것에 참여하는 학원들이 무책임한 무관심의 연속이다。

어디서 무슨 모임이 있느냐는 것이다。귀찮은데 왜 가느냐는 것이다。그리고 우리가 속해있는 대학을 위해야만 하는 시대추가 되어 있겠는가。우리들의 품을 현실에 맞게 적응시킬수 있는 못이 대학사회에 있지 아니가 이 축소된 사회의 일면인 대학에서 우리도 활성화되어 활발한 식이다。단체 속에 있는 명쾌한 정이들의 표상이 되어보자는 것이다。

너나나나 어느 누구 할 것없이 열정이 연구하며 활동으로 이제 보라는 진정한 자세를 가져야 하지않을 을까。

이 시대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이며 이 학교의 주인도 우리들이며 우리 동국인의 것이 아니가 거리에 부응하여 밑부리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해 보자는 것이다。아직도 구체적인 방안도 관심을 갖고 운영될 수 있는 동국학원의 새로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개되어 가고 있을은 후회감이 없지않으나 무척 반가운 일이다。그렇다고 권리신장을 위하여 환발한 활동들이 때늦은 후회감이 있다。그렇다고 무분별한 장 때문에 모 대학들모양 주먹으로 실력행사를 자행해 보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우리도 분명 학생이기 이전에 하나의 사람이다。평화한 가치관을 제 나들들대로 세울 수있는 대학인이며 지성인이라 자부할수 있다。

그런데 너무나 의아스러운것이 있다。

아직까지도 각개인들간에는 무사안일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듯싶다。오직 개인 하나만 편하고 아무일 없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외부와 그것에 참여할 정도였다。

그러지 말자。우리도 참 어디서 무슨 모임이 있느냐는 것이다。귀찮은데 왜 가느냐는 것이다。그리고 우리가 속해있는 대학을 위해야만 하는 시대추가 되어 있겠는가。우리들의 품을 현실에 맞게 적응시킬수 있는 못이 대학사회에 있지 아니가 이 축소된 사회의 일면인 대학에서 우리도 활성화되어 활발한 활동을 잠으로 부려 깨어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동국인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학원에 이르렀을 때 모르고 자기 전공분야에 전념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의 확실한 방향을 정어가고 있는 학생들이 보면 가슴 한가운데로부터 존경심이 유발됨을 숨길 수 있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연구생활 이외에 학가지를 침부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찾을 수 있는 학원들은 그야말로 부럽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사이 생동하고 있는 활기찬 분위기와 교내외적으로 자기들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환발한 활동들이 때늦은 후회감이 있다。그렇다고 무책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권리신장 자행해 보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우리도 분명 학생이기 이전에 하나의 사람이다。평화한 가치관을 제 나들들대로 세울 수있는 대학인이며 지성인이라 자부할수 있다。

그런데 너무나 의아스러운것이 있다。

아직까지도 각개인들간에는 무사안일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듯싶다。오직 개인 하나만 편하고 아무일 없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외부와 그것에 참여할 정도였다。

그러지 말자。우리도 참 어디서 무슨 모임이 있느냐는 것이다。귀찮은데 왜 가느냐는 것이다。그리고 우리가 속해있는 대학을 위해야만 하는 시대추가 되어 있겠는가。우리들의 품을 현실에 맞게 적응시킬수 있는 못이 대학사회에 있지 아니가 이 축소된 사회의 일면인 대학에서 우리도 활성화되어 활발한 활동을 잠으로 부려 깨어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동국인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학원에 이르렀을 때 모르고 자기 전공분야에 전념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의 확실한 방향을 정어가고 있는 학생들이 보면 가슴 한가운데로부터 존경심이 유발됨을 숨길 수 있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연구생활 이외에 학가지를 침부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찾을 수 있는 학원들은 그야말로 부럽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사이 생동하고 있는 활기찬 분위기와 교내외적으로 자기들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환발한 활동들이 때늦은 후회감이 있다。그렇다고 무책 반가운 일이다。그렇다고